

시민·관광객 모두 즐기는 ‘목포 뮤직플레이’ 열린다

내일부터 3일간 종합경기장 일원 전시·체험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임시주차장 확보 셔틀버스 운행

‘목포, 음악이 되다’를 주제로 한 대표 문화 축제 ‘2025 목포 뮤직플레이’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목포의 정체성과 감성을 음악으로 풀어낸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됐다.

음악공연, 전시·체험, 경연대회,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음악 도시 목포’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23일에는 ‘목포노래큰잔치’ 출연진 무대를 시작으로, 이난영·김시스터즈를 테마로 한 개막 공연과 LED 퍼포먼스, 그리고 남진, 김필, 소향, 두번째달, 윤수현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CROSS OVER 공연’이 펼쳐진다.

24일에는 창작곡 경연대회 본선과 축하공연, 비투비, 아이질린, 원어스 등 인기 K-POP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토요

일 밤을 수놓는다.

25일에는 전국 댄스배틀 경연과 함께 힙합 뮤지션 자이언티, 기리보이, 딘딘, 잭팟 등이 출연하는 ‘Hip-Pop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메인무대의 공연 외에도 길거리 노래방 ‘더스트릿 싱잉마블’, 뮤직플레이 리스트 신청곡 공연, 시민참여형 지역예술인 무대, ‘목포기억저장소’, ‘음악다방 스테이션’ 등 시대별 음악 전시·체험 공간, 푸드트럭존과 플라마켓, 힐링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2025 목포 뮤직플레이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관광객 안전을 위해 주무대 공연은 좌석제로 진행된다. 사전예매는 티켓링크에서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공연 당일 오후 1시부터는 별도의 현장예매 전용 좌석에 대해 선착순 현장예매가 가능하다.

프린지무대와 전시존, 체험존, 푸드트럭존 등은 뮤직플레이 기간 동안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상시운영되며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주차 편의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주변으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연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20분 간격으로 종합경기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3개 노선(각각 전남도교육청 평

화광장 경유, 목포역, 버스터미널 출발)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이동편의를 돕는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전예매를 통해 좌석을 미리 확보하면 더욱 편안하게 뮤직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드림스타트, 영유아 독서코칭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영유아 도서지침 및 양육자 독서코칭 프로그램 ‘생각이 쑥쑥! 사랑이 쑥쑥!’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영유아 30가정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아동에게는 수준에 맞는 월 4권의 도서와 워크북을 제공하고 양육자에게는 독서코칭을 통해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 강화를 돕는 부모교육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교높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문 방문교사가

매월 4회 가정을 방문해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 가정은 월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는 사업 운영 중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영유아 시기의 독서교육은 아동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며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양육환경이 개선되도록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경, 취약계층 대상 연안사고 예방 안전 교육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장 채수준)은 21일 신안군 증도면 대초경로당과 장고경로당에서 치매안심마을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안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안사고 예방교육은 신안군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해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검사 실시, 긴급전화 119 신고요령, 갯벌 및 갯바위 고립 시 탈출요령, 여름철 물놀이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치매 어르신들의 연안사고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대초마을, 장고마을 어르신들은 여름

물놀이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방법, 손주들의 물놀이 사고 시 대응요령 등에 관심이 높았고 교육 후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연안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구명조끼 착용법 등 올바른 물놀이 방법을 알려 드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연안사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전라남도 행복여행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관광 소외계층 여행기회 확대

전라남도 목포시는 관광 소외계층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5년 전라남도 행복여행 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11월28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남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당일 여행상품(1인당 최대 18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총 62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5월 20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 관광취

약계층이며 저소득층 448명, 장애인 179명을 모집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보호자, 지인, 활동보조인 등 1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동행인의 여행경비도 함께 지원된다.

여행은 6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되며 주요 여행지는 전남 도내 여수, 담양, 신안, 구례, 순천, 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되며, 모집 인원 초과 시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 지역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해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목포시 제공

65세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전라남도 목포시가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노년의 삶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한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남도안전학당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생활 속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 교육 프로그램

이다.

올해부터는 교육 대상을 목포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및 복지관, 요양병원까지 확대하고 총 50여 회에 걸친 교육 일정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교통안전(보행안전, 안전수칙 등) △생활안전(소화기사용법, 지진발생시 대피법) △여름철 자연재난(폭염, 풍수해) △건강상식과 웃음,

정신치료 △시민안전보험의 이해 등 생활속 피할 수 없는 각종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 종료 이후에는 질의·응답 코너도 함께 운영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과 위기 대응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부터 노년까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목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문화재단, 유달유원지서 ‘꿈의 향연’ 기획 공연

문화체육관광부와 목포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재)목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꿈의 향연 프로젝트 기획 공연이 지난 17일 목포시 대반동 유달유원지(스카이워크)에서 개최됐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목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목포’의 아동·청소년 단원이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목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꿈의 향연’ 공연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꿈의 향연 기획 공연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전국 동시 공연 사



지난 17일 목포시 대반동 유달유원지에서 목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목포’ 공연이 열렸다.

목포시 제공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꿈의 오케스트라 목포’는 전국 54개 거점기관 중 하나로 음악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꿈과 희망의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신록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5월, 꿈의 향연 공연을 찾아주신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공연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그들의 꿈을 현실로 이어주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문화재단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롭고 감동적인 음악 무대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